

# 개방으로 눈뜨는 제조업, 인도



## 목 차

### 요 약 / 1

---

#### I. 제조업 현황 / 2

---

1. 최근 동향
2. 투자현황
3. 경제적 효과
4. 제조업 발전과정 : 두 번의 경제성장과 위기 반복

#### II. 제조업 경제우위 요소 / 9

---

1. 풍부한 고급인력
2. 국제시장 접근성 우수 ① : 지리적 접근성
3. 국제시장 접근성 우수 ② : 경제적 접근성
4. 적극적인 정부지원
5. 제조업 연구개발(R&D) 확대
6. 중산층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확대

#### III. 제조업 대표 분야 / 15

---

1. 자동차 산업
2. 기계장비 산업

#### IV. 우리기업 진출전략 / 30

---

1. 현지기업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협력을 통한 진출
2. 인도 내수시장 공략, 주변지역 수출확대를 통한 투자전략
3. 인도 사업 진출 시 고려사항 및 해결과제
4. 기타 고려사항

##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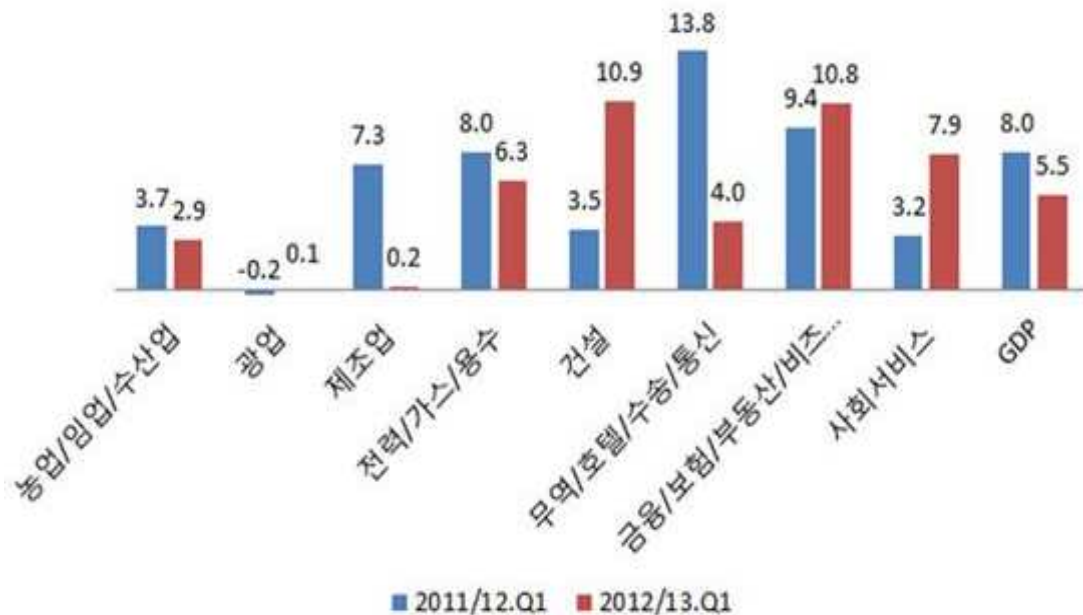
- 인도 제조업 성장률은 '07년 10.3%에서 '12년 0.2%의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난 5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그러나 '13년도 실시된 “국제 제조업 경쟁력지수”에서 세계 4위로 선정
    - '05년~'12년 인도 제조업은 연 8.7%의 누적성장률을 보였으며 풍부한 자원, 광범위한 산업기반, 및 고급기술력, 지속적인 경제개방과 자유화 정책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짐
  
- 제조업 경쟁우위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우수한 고급인력이 풍부함
    - '12년도 인도의 경제활동인구(15세~64세)는 7.8억명으로 향후 20년간 2.5억명이 증가되어 10.3억명으로 예상됨
  - 지리적, 경제적, 정책적으로 국제시장 접근성 우수
  
- 자동차 및 기계장비 산업이 대표적인 제조업 산업임
  - '05년~'12년 사이 인도 자동차 제조업은 연 13.2%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세단차량은 14.5%로 연 성장률이 가장 높음
  - 기계장비산업은 제조업생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기계를 공급해줌으로써 인도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특히 철강, 광산, 농업, 시멘트, 석유화학, 중장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현지기업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협력, 인도 내수시장 공략, 주변지역 수출확대를 통한 투자전략 방안 모색
  - CEPA 체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인하 회담에 대한 장기화와 인도시장에의 수출한계 등으로 직접투자가 필요

# I. 제조업 현황

## 1. 최근 동향

- 인도 제조업 성장률은 '07년 10.3%에서 '12년 0.2%의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난 5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생산이 '13년 1분기 전분기 대비 13% 감소하며 자동차산업 생산이 급락됨에 따라 제조업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인도 경제 전체 성장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됨
- 또한, 지난 5월 구매자관리지수(PMI)가 5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높은 중국 의존도, 고물가에 따른 내수부진과 전력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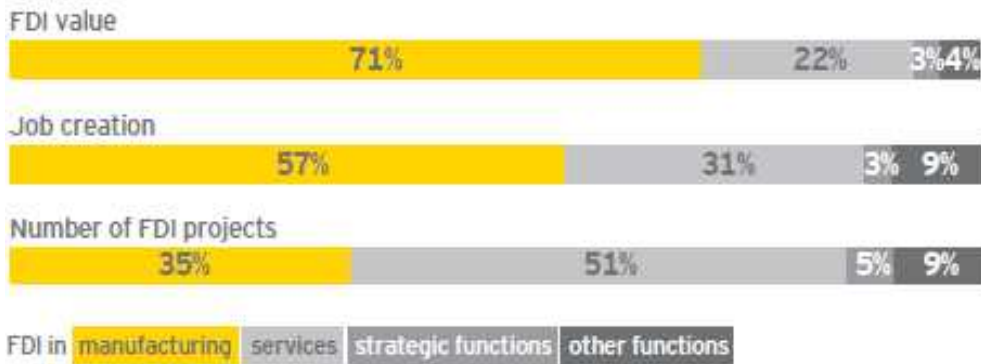
< 인도 산업별 성장률 >



자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00년~'13년 3월 기간 중 인도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금은 총 2,900억 달러를 기록
- '11년 기준 제조업 분야는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금액 기준 71%, 고용창출 중 57%를 차지함
- 외국인 직접투자 주요 분야는 제조업, 서비스, 교육 및 연구개발, 소매업, 건설 순임

< 인도 산업별 FDI 비중('11년) >



자료원 : FDI Intelligence

< 인도 산업별 FDI 금액 ('11년~'12년) >



자료원 : 인도 산업정책촉진부(DIPP)

## 2. 투자 현황

-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도 제조업 성장률은 저조한 편이나 해외 기업들의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투자는 확대 추세임
- 특히 최근 인도정부는 통신산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100%허용함에 따라 관련분야의 진입장벽이 사라져 향후 투자가 더욱 상승될 것

### < 인도 제조업 투자현황 >

기업	투자 사항	투자 지역	투자금 (억불)
보쉬(Bosch)	- 자동차 부품제조 - 차량용 펌프/밸브 등 제조단지설립	비다디 (Bidadi)	10.00
샤프(Sharp)	- 사무용품(프린터,프로젝터), 에너지(태양열판넬 등) 제조 - 인버터 에어컨 생산 공장 설립	뿌네 (Pune)	4.55
위프로(Wipro)	- 방산부품(유압실린더, 피스톤 등) 제조 - 인도 최초 항공우주관련 제조시설 설립	방갈로르 SEZ (Devanahalli)	1.09
JCB 건설회사	- 4번째 제조시설 설립계획 (향후 5년)	자이푸르 (Jaipur)	3.89
SHG-히타치	- 인도진출 합작기업 (중국 SHG사, 일본 Hitachi사) - 에어컨 압축기, 냉장고 제조생산	구자라트 (Gujarat)	3.89
미츠비시 (Mitsubishi)	- A&D 인버터 하위공정 증대	뿌네 (Pune)	0.02
URB그룹	- 베어링(Bering) 제조 - 최초 인도진출	라자스탄 (Rajasthan)	6.60
굿레지(Godrej)	- 냉장고, 에어컨, 가전제품 제조 - 아시아 및 아프리카 일대 진출 - 보쉐(Boche)사 및 지멘스(Siemens)사와 기술제휴를 통한 제조공장 설립	시왈리크 (Siwalik)	N/A
스타래그 (Starrag) 그룹	- 기계제조생산단지 건설 예정	방갈로르 (Bangalore)	0.01

자료원: 인도 경제무역조사기관 (IEBF)

### 3. 경제적 효과

- (GDP 비중)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 역시 제조업 비중이 '12년도 15.2%를 보이며 동기간 전년대비 0.5%가량 하락함
- 인도 상공회의소는 '13년도 더딘 경제회복과 자원 과잉으로 제조업의 GDP비중이 15% 이하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함

< 인도 GDP와 제조업 성장추이 >



자료원 : 인도 경제무역조사기관 (IEBF)

- 제조업은 고아 주, 구자라트 주, 자카란다 주에서 주 GDP의 25%, 라자스탄 주, 카르나타카 및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 GDP의 7% 차지함

< 주 GDP내 제조업 25%이상인 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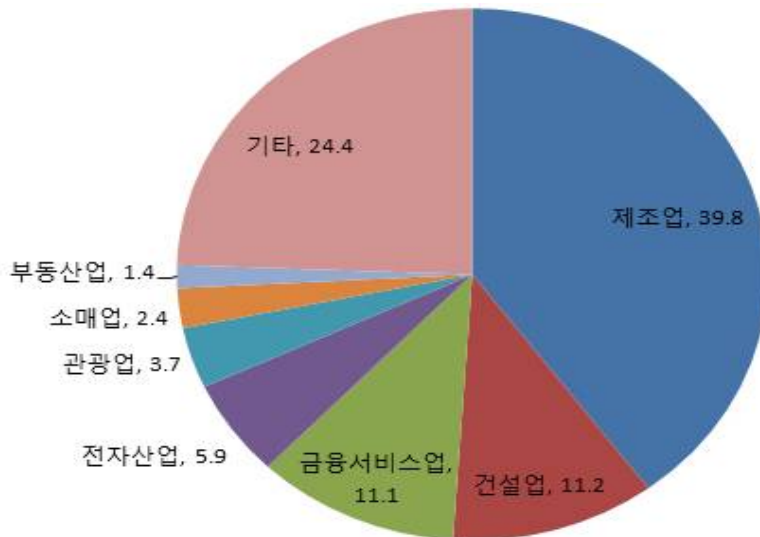


자료원 : 인도 경제무역조사기관 (IEBF)

□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FDI)에서 제조업은 39.8%('12년)로 전체 비중에서 가장 높음

- 주로 기계장비 및 자동차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높은 편이며 주요 투자국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있음.
- '12년도 어네스트 앤 영(Ernest&Young)에서 실시된 'FDI 선호국가' 조사에서 인도는 넓은 시장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2위 차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음

< 인도 외국인 직접투자 제조업 비중('12년) >



자료원 : 인도 중앙은행 연간보고서('12년)

< FDI 제조업투자국 순위 >

순위	국가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프랑스
...	...
10	핀란드
11	그 외

자료원 : E&Y 연간보고서 ('12년)

□ (수출) 제조업은 전체 수출에서 61.3%를 차지하며 인도 수출산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10년~'12년 사이 엔지니어링부분 성장률이 36.5%로 크게 하락하며 전체 제조업 수출성장률('12년)이 37.2%에서 18.2%로 축소됨

< 인도 전체 수출 내 제조업 비중 >

(단위: 백만불, %)

구분	2010	2011	2012	전년대비 성장률('11~'12)
I. 제조업	115,180.0	157,993.9	186,784.2	18.2
A. 피복	3,361.1	3,910.6	4,788.5	22.4
B. 화학	22,908.8	28,871.0	37,190.5	28.8
C. 엔지니어링	38,271.3	58,137.4	67,093.1	15.4
D. 섬유	19,853.0	24,225.0	27,998.0	15.6
E. 보석	28,996.3	40,476.1	46,900.8	15.9
F. 수공예품	224.8	256.9	233.5	-9.1
<b>총액</b>	<b>178,751.4</b>	<b>251,136.2</b>	<b>304,623.5</b>	<b>21.3</b>

자료원 : 인도 중앙은행

□ (고용) 제조업(기계장비외)종사자는 인구 전체 고용인구 중 3위이며, 제조업(기계장비)종사자는 8위임

○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소비자 구매심리위축, IT, 소비재 및 자동차 산업의 매출감소와 금리 및 유가상승 등으로 제조업 고용성장에도 영향을 끼침

< 인도 제조업 고용현황 >

구분	2011	2012	전년대비 성장률
제조업 - 기계장비	1,190	1,249	5.00
제조업 - 기계장비 외	4,662	4,825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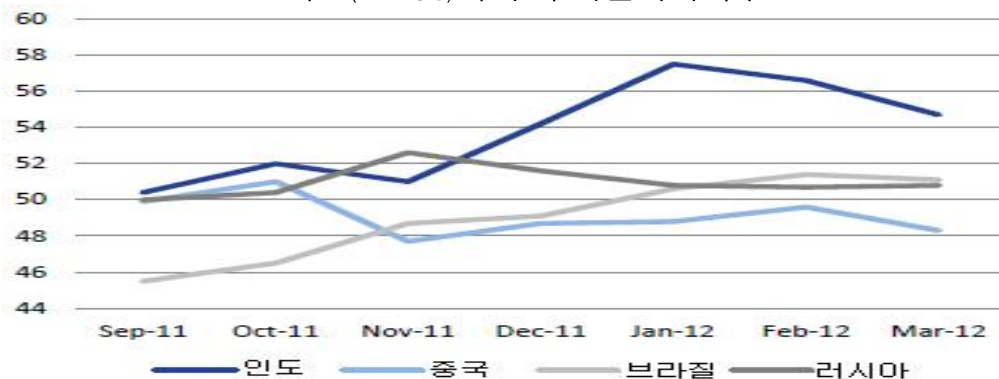
자료원 : 인도 노동부, (단위: 천명, %)

#### 4. 인도 제조업 발전과정 : 두 번의 경제성장과 위기 반복

□ (독립과 부흥) 독립직후 전근대적인 사회제도와 공업기반 결여로 농업부분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5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제조업이 크게 성장함

- 수입 대체산업육성을 위해 중공업 발전과 농업 생산기반의 경제발전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함
- (눈부신 경제성장) '80년대 석유증산 및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연 5%의 성장을 실현
  - 특히 '84년 라지브 간지 총리 집권 이후 외국인 투자 자유화 조치 등 제한적 경제자유화와 개방화 정책을 통해 인도 제조업은 더욱 성장함
- (전쟁과 위기, 대안책마련) '90년대 초 발발한 걸프전으로 경제악화와 정치 불안 및 외환위기가 제조업에도 영향을 끼쳐 성장률이 저조하였음
  - 그러나 IMF 등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과 '91년 진입장벽 및 독점규제 제거,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공공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신 경제정책 및 위기상황 극복대안 마련
- (제조업 감소) '04년~'10년 평균 8.3%의 성장률로 세계 2위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이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변화로 제조업이 인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낮아짐
- (매력적인 투자처) '05년~'12년 인도 제조업은 연 8.7%의 누적성장률을 보였으며 풍부한 자원, 광범위한 산업기반, 및 고급기술력, 지속적인 경제개방과 자유화 정책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짐

< 브릭스(BRICs)국가 구매관리자지수 >



자료원 : 홍콩-상하이국제은행(HSBC)

## II. 제조업 경제우위 요소

‘13년도 실시된 “국제 제조업 경쟁력지수”에서 중국, 미국, 독일 다음으로 인도가 선정, 세계 4위를 기록하였으며 ’18년도엔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

### 1. 풍부한 고급 인력

□ ‘12년도 인도의 경제활동인구(15세~64세)는 7.8억명으로 향후 20년간 2.5억명이 증가되어 10.3억명으로 예상됨

○ 25세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 중 50%를 차지하며, 35세 이하는 65%를 차지하여 젊은 경제활동인구가 풍부하며 203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인구층을 갖출 것

<’09-’11년도 인구 증가율 >

국가	인도	중국	한국
인구 증가율	1.34	0.51	0.26

자료원 : 삼성경제연구소(’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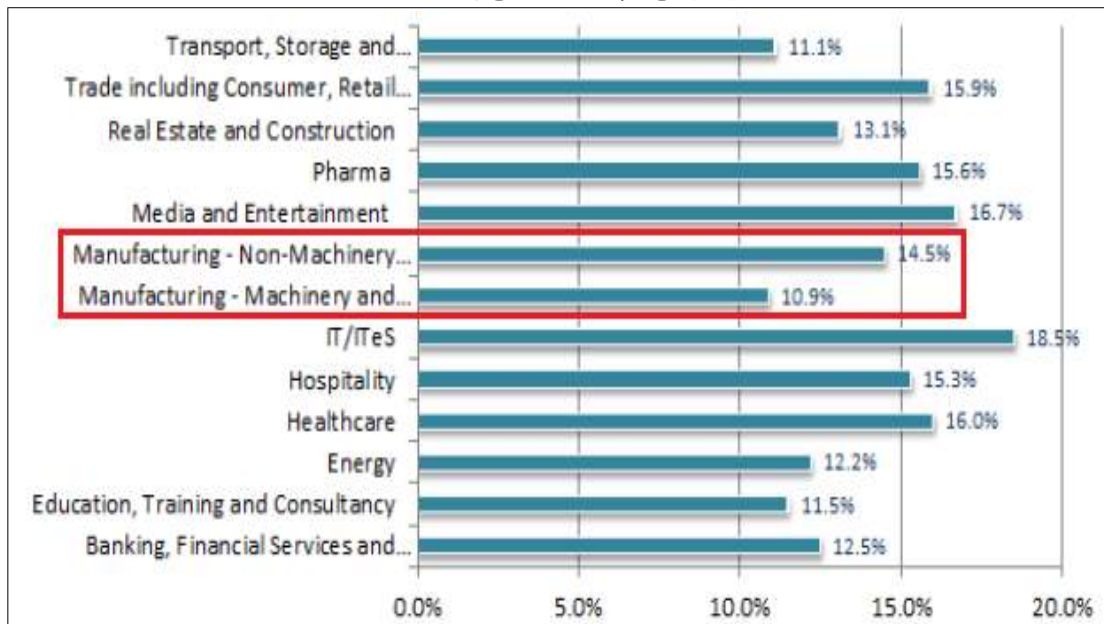
< 총 인구 및 노동인구율 >



자료원 :국제은행기구, HMC투자증권

- 우수한 영어구사능력과 고도로 숙련된 고급인력들이 풍부, 해외네트워크 확대 및 외국진출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함
- 고학력 연구원 인건비는 미국의 5분의 1가격으로 저렴한 편이나 최근 해외경력 인력의 증가로 산업별 인건비가 상승중임

<'12년 예상 인건비 상승률 >



자료원 : 홍콩-상하이국제은행(HSBC)

## 2. 국제시장 접근성 우수 ① : 지리적 접근성

- 인도는 유럽, 중동, 아시아권 국가들 및 호주 등 동양과 서양국가 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음
  -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 중심에 위치하여 남아시아 경제권 형성을 주도함
  - '07년도부터 현재까지 인도는 모리셔스의 가장 큰 수출국으로 대 인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많음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국 순위 >

(단위:백만불)

Ranks	Country	2010-11 (April - March)	2011-12 ( April - March)	2012-13 (April - March)	Cumulative Inflows (April '00 - March '13)	%age to total Inflows (in terms of US \$)
1.	MAURITIUS	31,855 (6,987)	46,710 (9,942)	51,654 (9,497)	341,125 (73,666)	38 %
2.	SINGAPORE	7,730 (1,705)	24,712 (5,257)	12,594 (2,308)	90,182 (19,460)	10 %
3.	U.K.	12,235 (2,711)	36,428 (7,874)	5,797 (1,080)	80,459 (17,549)	9 %
4.	JAPAN	7,063 (1,562)	14,089 (2,972)	12,243 (2,237)	70,094 (14,550)	8 %
5.	U.S.A.	5,353 (1,170)	5,347 (1,115)	3,033 (557)	50,923 (11,121)	6 %
6.	NETHERLANDS	5,501 (1,213)	6,698 (1,409)	10,054 (1,856)	42,378 (8,965)	5 %
7.	CYPRUS	4,171 (913)	7,722 (1,587)	2,658 (490)	32,328 (6,889)	4 %
8.	GERMANY	908 (200)	7,452 (1,622)	4,684 (860)	25,512 (5,480)	3 %
9	FRANCE	3,349 (734)	3,110 (663)	3,487 (646)	16,865 (3,573)	2 %
10.	U.A.E.	1,569 (341)	1,728 (353)	987 (180)	11,307 (2,422)	1 %
TOTAL FDI INFLOWS FROM ALL COUNTRIES *		97,320 (21,383)	165,146 (35,121)	121,907 (22,423)	896,913 (193,403)	-

\*Includes inflows under NRI Schemes of RBI.

자료원 : 인도 중앙은행

3. 국제시장 접근성 우수 ② : 경제적 접근성

□ 인도는 CEPA와 FTA 등 한국, 일본, 아세안국을 포함한 전 세계 20여개 국가와 무역협정을 맺어 무관세 및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대한 낮춰 접근 가능

- 한-인도 FTA는 '04년 처음으로 공동연구개시에 합의, '09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CEPA)에 승인했으며 '10년 1월 발효하였음
- 뉴질랜드, 호주, 인니, 캐나다와는 협상개시예정, 러시아와 중국과는 공동연구 완료,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걸프협력회의(GCC), 모리셔스, 이집트, 말레이시아, 빔스텍(BIMSTEC)과는 자유무역협정이 진행 중임

## &lt; 인도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gt;

구분	국가 / 지역	협정 상황
1	싱가포르	시행 중 ('05. 8월 발효)
2	스리랑카	시행 중(상품분야)('01년 발효) (서비스, 투자분야 협상 완료 - 미서명)
3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 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시행 중('04.1월 발효)
4	칠레	시행 (칠레 '07.8.17 발효, 인도 07.9월 발효)
5	메르코수르(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시행 중('09.6월 발효)
6	태국	시행 중('04.8월 발효)
7	부탄	시행 중('06.7월 발효)
8	아프가니스탄	시행 중('03.3월 발효)
9	네팔	시행 중 ( '02.3월~'07.3월 기간 시행 후 '07.3월~'12.3월 기간 갱신)
10	한국	시행 중('10.1월 발효)
1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서명 완료(상품 분야 '10.1월 발효)
12	일본	서명 완료('11.2월 발효)

자료원 : 인도 상공부 등

#### 4. 적극적인 정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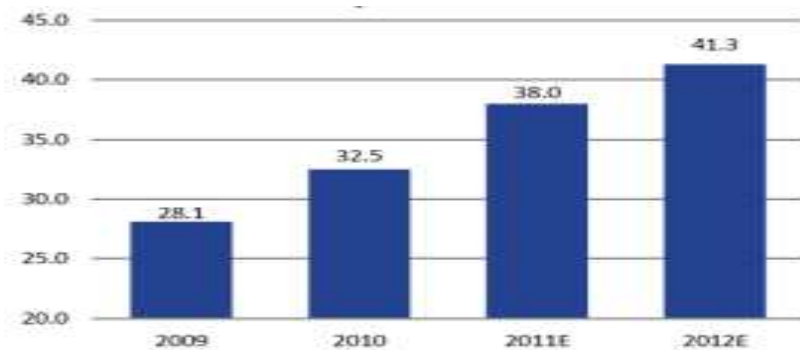
- 인프라 구조지원 및 제조산업지구(NMIZ) 등 제조업 부흥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제조업 개선정책과 프로젝트가 실시 중임
  - 델리-뭄바이 산업회랑개발(DMIZ)와 인프라 개발 등을 포함한 지역 산업화 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제조업이 향후 10년 이내로 부흥될 것
  - 정부는 해외투자자 보호를 위한 소득세 면제, 인건강화, 산업지구 촉진 등과 같은 산업정책을 실시 중임

## 5. 제조업 연구개발(R&D) 확대

- 생산개발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주요 동력이 되는 인도의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임
  - 기업연구개발비에 대해 '17년까지 세금공제적용을 허용하여 제조업 육성에 집중, 인도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유확대 의지를 표명함
- '11년 인도의 연구개발 지출은 전년대비 2.6%에서 2.8%로 0.2%가량 상승하였음

< 인도 제조업 연구개발 지출 추이 >

(단위: US\$십억)



자료원 : 인도 경제무역조사기관 (IEBF)

- '10년, 인도 제조업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보유자는 총 103건으로 파악됨

## 6. 중산층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확대

- '12년 인도 중산층 시장은 2억~2.5억 명으로 추정되며 2030년 소비규모가 12.77조억으로 세계 1위의 제조업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로 필수소비재 및 내구재 소비가 늘어 '17년 1억대 이상 판매될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인도와 같은 아시아 주요국 비중이 57%이상 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소비는 2025년 1,064달러로 미국, 일본, 중국, 영국에 이어 세계 5위에 이르게 될 것
- 또한, 인도 중산층의 1인당 연평균 소비는 인도 전체소비의 60%를 차지, 소비재 절반 이상이 중산층에서 이뤄질 것

< 인도 중산층 규모 >

구매평가력기준	전체인구대비 비중(%)	인구수 (100만 명)	연간 지출 (10억 달러)
2-4 달러	20.45	223.82	1.14
4-10 달러	4.15	45.41	117.11
10-20 달러	0.45	4.90	44.39
<b>총 합계</b>	<b>25.05</b>	<b>274.31</b>	<b>172.46</b>

자료원 : 아시아개발은행('10년)

### III. 제조업 대표 분야

#### 1. 자동차

##### □ 개황

- 최근 악화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핵심 분야임
  - 세계 2위의 이륜차시장, SUV 차량의 수출허브, 원가경쟁력, 전략적 위치이점으로 해외 자동차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 인도 전체 GDP에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16년 10.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자동차 산업 GDP 비중 >

구 분	2006년	2010년	2016년
GDP 규모 (US\$십억)	650	950	1,390
자동차 산업 규모 (US\$십억)	34	69	145
비중(%)	5.2	7.3	10.4

자료원 : 인도 자동차산업발전(IAMP)

##### □ 최근 동향

- '05년~'12년 사이 인도 자동차 제조업은 연 13.2%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세단차량은 14.5%로 연 성장률이 가장 높음
  - '12년 이륜차 시장은 전체 차량 생산의 75%를 차지하며, 트럭은 전체 차량 판매의 47.8%를 차지함.

-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13년도 상반기 인도 승용차 판매가 전년 동월대비 25.7% 감소하였으며, 특히 초소형차(800cc미만) 부분의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됨
  - 초소형 자동차 부문은 '11년도 판매량 71.60만대에서 '13년도 상반기 62.30만대를 기록하며 13% 감소하였음
  - 정부는 세단 및 SUV의 차체 및 엔진크기에 따라 차등세를 부과하였으며 소형차에는 12%로 낮은 세금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소형모델의 매출회복에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됨
- 인도 자동차 시장의 주 소득원이던 저가 소형차 대신 프리미엄 해치백과 중형 세단의 구매가 17~20%가량 증가하여 모델량이 성장하였음
  - 마루티 스즈키 Dzire, 마힌드라 Bolero, 도요타 Innova, 현대 i20와 같은 큰 모델이 판매 호조를 보이며 '13년 상반기 판매 상위를 차지
- 인도 자동차 기업들은 중형화되는 트렌드에 따라 신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12년 마루티 스즈키 사는 미국철수 이후 인도시장에서 고(高)마진을 남기는 중형부분 모델에 주목하였으며, Swift 해치백 가격에 가까운 신규 해치백을 소개할 예정임
  - 혼다에서는 인도를 공략하기 위한 컴팩트 세단 Amaze를 출시 6,036대('13년 6월) 판매기록, 향후 세단차량의 판매가 더욱 기대됨
- '12년 유틸리티 차량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51.34만대가 팔렸으며 시장 점유율이 20.60%를 기록하였으며 소형 SUV 판매가 증가중임
  - 프리미엄 해치백 타입의 소형 SUV Figo를 출시한 포드 인디아는 '13년 신개념 에코스포츠(The EcoSport) 모델을 인도 승용차 시장에 새롭게 선보일 예정임

- 이에 포드인디아는 신모델 생산을 위해 첸나이 공장에 14.2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예정
- 그 외에도 마루티 스즈키, 혼다, 도요타, 닛산, 르노, 제너럴 모터스, 피아트가 2~3년 안에 소형 SUV를 계속하여 출시할 예정
- 전 세계적으로 연료 절감을 위한 소형차량의 생산이 증가하며 인도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생산기지로 성장하고 있음
- 인도 생산 근로자 임금은 미국 및 유럽국가의 1/10 수준이며 원자재 가격도 11%가량 낮아 신차 개발비용이 선진국의 절반 정도임.

## □ 생산 현황

- '12년 인도의 총 자동차 생산은 2,036만대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5년간 꾸준한 성장을 보임

< 연도별 자동차 생산량 >

구 분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승용차	1,777,583	1,838,593	2,357,411	2,987,296	3,123,528
상용차	549,006	416,870	567,556	752,735	911,574
삼륜차	500,660	497,020	619,194	799,553	877,711
이륜차	8,026,681	8,419,792	10,512,903	13,376,451	15,453,619
총 계	10,853,930	11,172,275	14,057,064	17,916,035	20,66,432

자료원: 인도 자동차제조협회(SIAM)

-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도경제의 둔화가 지속되어 '12년 국내 총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12.24%에 그침
- 전체 판매 중 승용차, 상용차, 이륜차는 각각 4.65%, 18.2%, 14.16%씩 증가하였으나 삼륜차는 2.4%가량 감소세를 보임

< 연도별 자동차 판매량 >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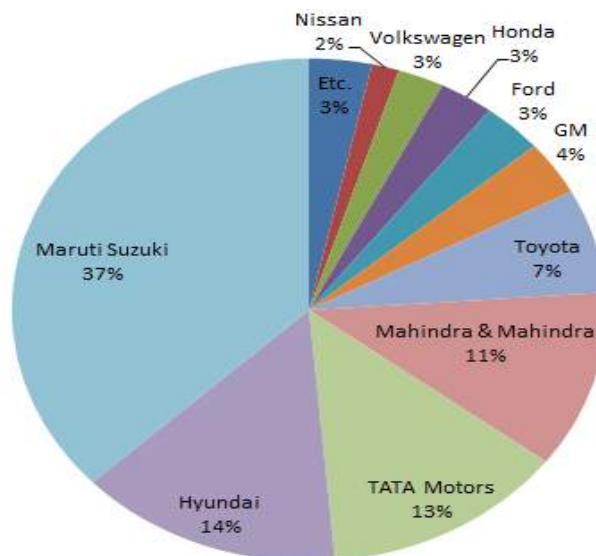
구 분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승용차	1,379,979	1,549,882	1,951,333	2,501,542	2,618,072
상용차	467,765	490,494	532,721	684,905	809,532
삼륜차	403,910	364,781	440,392	526,024	513,251
이륜차	7,872,334	7,249,278	9,370,951	11,768,910	13,435,769
<b>총 계</b>	<b>10,123,988</b>	<b>9,654,435</b>	<b>12,295,397</b>	<b>15,481,381</b>	<b>17,376,624</b>

자료원: 인도 자동차제조협회(SIAM)

○ 주요 자동차 생산기업 및 공장소재지

- 인도 자동차 국내 생산기업은 타타(Tata Motors),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 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 히어로 혼다(Hero Honda), 바자지(Bajaj), 아쇼크 레이랜드(Ashok Leyland)가 있음
- 인도 자동차 국제 생산기업은 현대(Hyundai), BMW, 아우디(AUDI), 도요타(Toyota), 아우디(AUDI),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폭스바겐(Volkswagen), BMW 등이 있음

< '12년 인도 자동차 시장점유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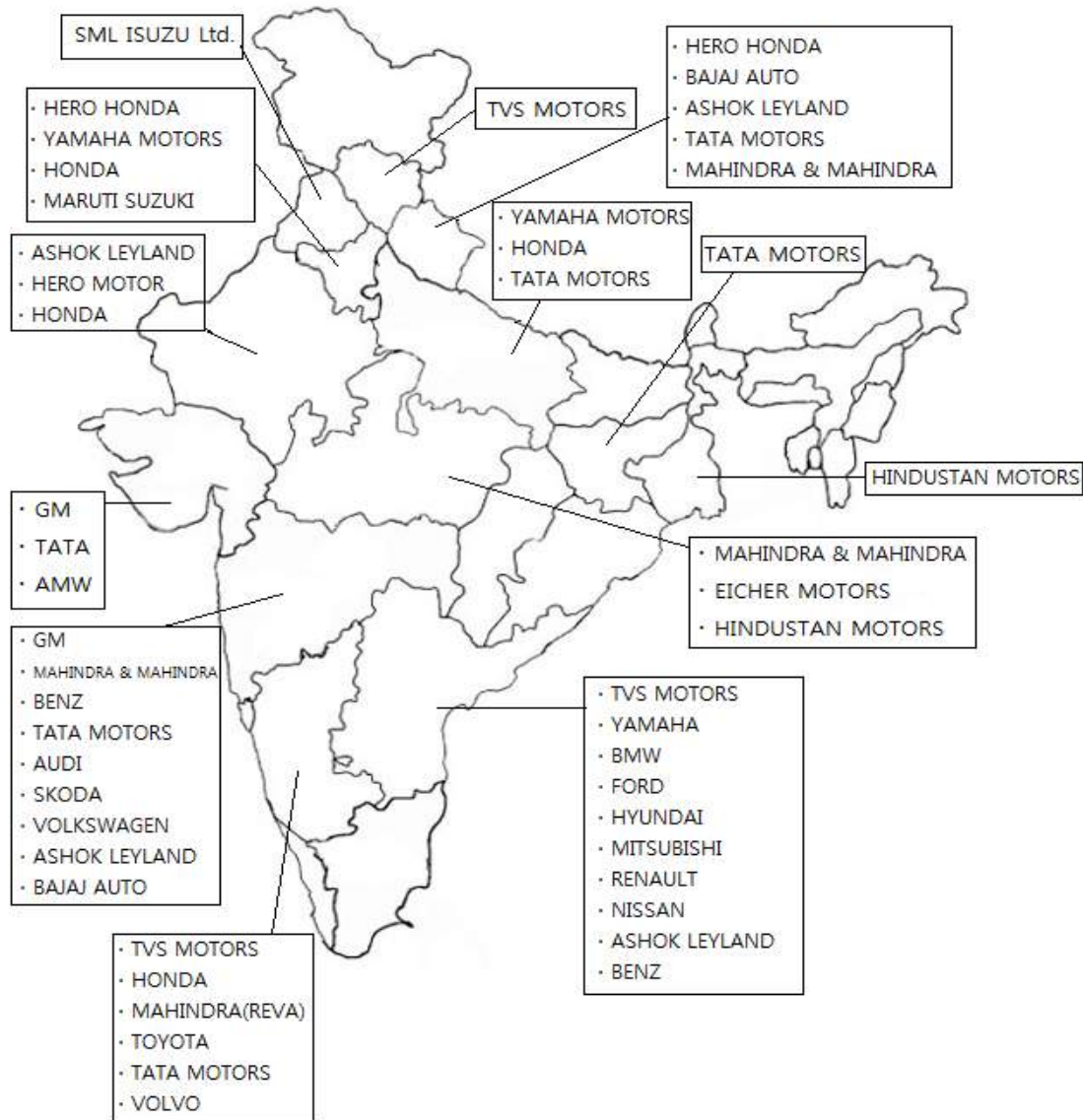
자료원 : 인도 자동차제조협회(SIAM)

< 인도 내 주요 자동차 생산기업 >

제 조 기 업	생 산 품	제 조 공 장 위 치	'12년 총 매출 (US\$억)
TATA Motors	승용차, 상용차, 다목적 차량	뿌네, 잠세드푸르, 사난드, 란잔고안다르와드,아흐메바드	326.70
Maruti Suzuki	승용차, Van, 다목적 차량	구르가온, 미네사르	75.00
Mahindra & Mahindra	상용차	나시크, 첸나이, 자히라바드	74.00
Hyundai	승용차, 상용차 유틸리티 차량	이룬가투코타이(첸나이) 하이데라바드 (연구 시설)	42.50
Hero Motors	모터사이클	구르가온, 하리드와	39.00
Bajaj Motors	모터사이클	뿌네, 판트나가르, 아우랑가바드	33.90
Ashok Leyland	상용차	판트나가르, 알와르, 반다라, 호수르, 첸나이	25.00
Skoda	승용차	뿌네	135.00
Toyota	승용차	구르가온	1,920.00
BMW	승용차	뭄바이, 뿌네	690.00

자료원 : DI 국제 사업개발 보고서, 2012

< 인도 주요 자동차 공장위치 >



\* 자료원: 각 사 홈페이지 자료로 KOTRA 재구성

□ 수출 현황

- '05년~'12년 사이 인도 자동차 수출은 연 22.5% 누적성장률로 이륜차 부분이 25.38%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임
- '12년 인도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이륜차가 194만대로 67%로 큰 점유율이며 승용차 18%, 삼륜차 12%를 그 뒤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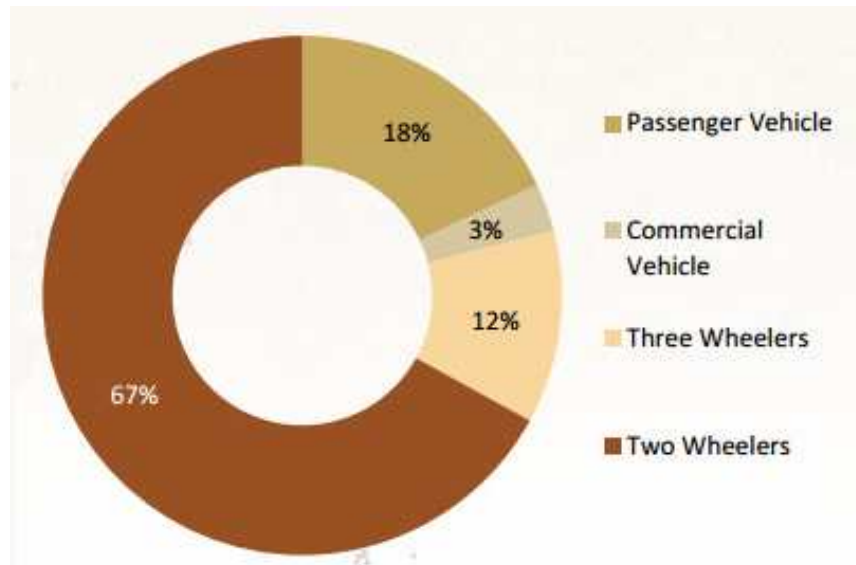
< 연도별 자동차 수출량 >

(단위; 대수)

구 분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승용차	198,452	218,401	335,729	453,479	507,318
상용차	49,537	141,225	42,625	76,297	92,663
삼륜차	143,896	141,225	1,004,174	269,967	362,876
이륜차	619,644	819,713	1,004,174	1,539,590	1,947,198
<b>총 계</b>	<b>1,011,529</b>	<b>1,238,333</b>	<b>1,804,426</b>	<b>2,339,333</b>	<b>2,910,055</b>

자료원: 인도 자동차제조협회(SIAM)

< '12년도 인도 차종별 수출 점유율 >



자료원: 인도 경제무역조사기관 (IEBF)

- 인도 자동차의 주요 수출시장은 영국, 이태리,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싱가포르와 미국임
- 가장 큰 승용차 수출 시장은 영국, 이태리, 독일,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이며, 최근 싱가포르는 상용차 수출 대상으로 급부상 중임

□ 자동차 분야 주요 투자 계획

- 주문자생산(OEM)식 기업들은 증가하는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인도를 소싱허브(Sourcing Hub)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

- 자동차 완제품 수출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로 인도 진출 국제기업들은 현지생산을 통해 시장진입의 입지를 다진 후, 중동, 아프리카 및 유럽 등지로 수출을 진행함

< 자동차 제조기업 투자현황 >

제조 기업	투자 계획	투자 지역	투자금액 (US\$억)
VOLKSWAGEN	자동차 제조소싱 2배 증가계획	추진중	NA
FORD	아프리카 및 아태시장 목표로 엔진생산기지 공장 건설	사난드	10
HONDA	4번째 제조공장 설립 계획	카르나타카	10
TOYOTA	제조공장 확장계획	비다디 공장	1.87
HYUNDAI	디젤 엔진 공장 건설계획	추진중	0.19
BENZ	소형차 신차 5대 출시 준비	뿌네 공장	0.71
ISUZU	차량생산용 그린필드(Green-field) 건설계획	안드라프라데시	2.77

자료원: 인도 경제무역조사기관 (IEBF)

< 우리기업 주요 진출현황 >

- 1) 대표적으로 현대 인디아는 1996년 인도 자동차시장에 처음 진출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공적인 현지화로 '12년 인도 전국 2위 판매율을 보임
  - 현대 인디아 : 1996년 첸나이에 생산공장 건설, '12년 39만대를 판매하며 전년대비 판매율 4.7% 증가하며 인도 내 판매율 2위 기록. 주로 소형차 생산이 많으며 대표적인 모델은 EON, 산트로, i10, i20, 베르나, 뉴소나타, 산타페 등이 있음.
- 2) 한국 쌍용자동차는 인도 마힌드라사와 합작벤처(JV)를 통해 REXTON 출시, 이런 기회를 통해 인도 전역에 걸쳐 자회사 사업을 확장계획을 세움

## 2. 기계장비 산업

### □ 개황

- 인도 기계장비산업은 전체 GDP의 3%밖에 차지하지 않으나 제조업생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기계를 공급해줌으로써 인도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특히 철강, 광산, 농업, 시멘트, 석유화학, 중장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기계장비산업은 조직적 다국적기업, 합작벤처기업,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 등으로 구성됨

< 기계장비 산업 구분 및 활용범위 >

구분	경공업	Castings, Forgings and Sophisticated process control
	중공업	Heavy electrical, Heavy engineering, Machine tools, Automotive
활용 범위	Textile machinery, Machine tools, Earthmoving and Construction machinery, Mining machinery, Cement machinery, Sugar machinery, Rubber machinery, Metallurgical machinery, Chemical and Fertilizer machinery, Dairy machinery, Printing machinery, Material handling equipment, Boilers, Turbines, Generators, Transformers, Switchgears & Control gears, Oil field equipment, Paper machinery, Ferrous castings	

자료원 : 인도 경제무역조사기관 (IEBF)

- 전체 기계장비산업의 50%는 카르나타카 주에서 생성되고 있으며 주 전체 GDP의 17%를 차지하며 '14년까지 20%를 달성할 예정임
- 인도 국내외로 증가되는 수요, 산업기반시설 개발계획 및 정책 개선안으로 기계장비수출은 '14년 1,250억 달러에 도달할 것
- 저임금, 풍부한 노동력, 고급인력 등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등으로 고급기술이 도입되어 기계장비산업이 성장함
- 매년 500명이상의 박사학위 인력과 20만이상의 엔지니어, 30만이상의 전공생, 210만이상의 학부생을 배출하여 고급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고 있음
- 또한, 특별경제지구 건설 및 현재 건설 진행 중인 수바르나-카르나타카 산업벨트<sup>1)</sup>등에서 세금감면, 연구 개발 활동,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직접투자 100% 허용 등 기계장비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짐

1) 수바르나-카르나타카 산업회랑(Suvarna-Karnataka Industrial Corridor) : 에너지, 철도, 도로 및 자유무역지구, 산업인프라시설 지역으로 방갈로르, 망갈로르, 후블리 등 카르나타카 주의 대도시 20곳을 연결할 산업회랑. 이 회랑을 따라 철강, 엔지니어링, 섬유제조단지건설 계획

□ 생산현황

- '11년도 인도 기계장비산업은 세계 16번째 생산량과 세계 7번째 소비액을 보이며 전년대비 각각 13%, 33%씩 성장함

< 기계장비산업 생산량 및 소비량 >

Production						Consumption					
Country	2011 (est.)		2010 (rev.)	Change in local currency	Change in U.S. dollars	Country	2011 (est.)		2010 (rev.)	Change in local currency	Change in U.S. dollars
	\$-Millions	Cut-Form					\$-Millions	\$-Millions			
1. China	27,680.0	69-31%	20,910.0	\$	32%	1. China	38,370.0	28,480.0	\$	35%	
2. Japan	18,353.1	89-11%	11,971.4	39%	53%	2. Japan	7,620.5	4,889.8	41%	56%	
3. Germany	13,494.7	74-26%	9,488.8	35%	42%	3. Germany	6,956.0	4,677.5	42%	49%	
4. Italy	6,232.6	49-51%	5,017.9	18%	24%	4. United States	6,611.9	4,313.4	\$	53%	
5. Korea, Rep. of	5,641.0	69-31%	4,498.0	\$	25%	5. Korea, Rep. of	5,131.0	4,264.0	\$	20%	
6. Taiwan	5,000.0	80-20%	3,877.0	29%	29%	6. Italy	2,963.3	2,672.5	6%	11%	
7. United States	4,161.1	73-27%	3,340.1	\$	25%	7. India	2,352.0	1,775.0	\$	33%	
8. Switzerland	3,462.7	84-16%	2,395.2	23%	45%	8. Brazil	1,990.0	1,861.3	\$	7%	
9. Spain	1,053.3	64-36%	836.9	20%	26%	9. Taiwan	1,800.0	1,623.0	11%	11%	
10. Austria	1,001.8	54-46%	844.0	13%	19%	10. Mexico	c1,360.9	c1,060.4	\$	28%	
11. France	930.7	61-39%	662.2	34%	41%	11. Russia	1,317.0	1,165.0	13%	13%	
12. Brazil	873.4	81-19%	837.4	\$	4%	12. Turkey	1,285.0	864.9	\$	49%	
13. Turkey	668.0	25-75%	555.0	20%	20%	13. Switzerland	1,240.7	850.5	24%	46%	
14. United Kingdom	658.0	72-28%	507.2	25%	30%	14. France	1,182.5	850.2	32%	39%	
15. Canada	c639.3	60-40%	c546.8	17%	17%	15. Canada	c1,143.6	c848.8	\$	35%	
16. India	576.0	87-13%	512.0	13%	13%	16. Austria	632.2	446.3	35%	42%	
17. Czech Republic	446.0	80-20%	372.0	20%	20%	17. United Kingdom	561.7	422.1	28%	33%	
18. Netherlands	400.7	20-80%	317.8	20%	26%	18. Spain	451.5	473.4	-9%	-5%	
19. Belgium	375.6	20-80%	298.0	20%	26%	19. Sweden	372.8	259.6	37%	44%	
20. Russia	263.0	41-59%	219.0	20%	20%	20. Netherlands	328.3	256.9	22%	28%	
21. Sweden	218.4	38-62%	207.9	0%	5%	21. Belgium	301.9	252.9	14%	19%	
22. Finland	166.9	20-80%	135.1	18%	24%	22. Czech Republic	291.0	130.0	\$	124%	
23. Mexico	c122.4	58-42%	c165.5	\$	-26%	23. Romania	u243.0	243.0	0%	0%	
24. Australia	100.9	86-14%	113.6	\$	-11%	24. Argentina	211.5	146.3	\$	45%	
25. Denmark	76.5	40-60%	72.8	0%	5%	25. Australia	167.0	220.9	\$	-24%	
26. Portugal	73.7	21-79%	66.2	6%	11%	26. Finland	128.0	108.6	12%	18%	
27. Romania	u42.5	71-29%	42.5	\$	0%	27. Portugal	104.3	115.2	-14%	-9%	
28. Argentina	32.3	50-50%	29.0	\$	11%	28. Denmark	43.1	41.1	0%	5%	
Total	\$92,744.7		\$68,839.3		35%						

자료원 : 가드너 조사보고서('12년)

- 대표 기계장비 제조기업으로 L&T(Larsen&Toubro) 사, 바라트(BHEL) 사, 지멘스(Siemens India) 사가 있음

< 기계장비 주요 제조기업 >

기업명	주요제품	제조공장 대표위치	'12년 수입 (US\$억)
L&T	엔지니어링 및 건설, 시멘트, 전자장비 및 건설장비	방갈로르, 마이소르, 첸나이, 뭄바이, 폰디체리, 파리다바드, 로우케라	128
BEML	전력장비, 송수신장비, 기계장비	보팔, 하리드와, 잔시, 방갈로르, 하이데라바드, 트리시, 벨로르	104
SIEMENS INDIA	전력장비, 수송시스템, 통신, 헬스케어, 기계장비	방갈로르, 아우랑가바드, 뭄바이, 고아, 구르가온, 폰디체리	25
ABB	변압장치, 스위치 및 컨트롤기어	방갈로르, 파리다바드, 바도다라하롤, 하리드와, 뭄바이, 나시크, 넬라만가라	16
CROMPTON	전력장비, 송수신장비 등	아루랑가바드, 방갈로르, 뭄바이	23

자료원 : 인도 경제무역조사기관 (IEBF)

□ 수출입 현황

- 인도의 기계장비분야 거래는 수출대비 수입량이 더 많으나 정부의 내수시장 강화정책에 따라 최근 수출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13년도 기계장비 전체수출은 전년대비 2%상승하며 307.2만달러 기록
  - 금속절단기계의 수출은 '13년도 161.3만 달러로 전년대비 33% 하락하였으나 금속성형기계의 수출은 145.9만 달러로 전년대비 282%상승하며 전체 기계장비분야의 수출이 소폭 증가함
  - 기계장비산업은 전체 기계산업에서 21.4%의 수출 점유율을 차지하며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UAE, 싱가포르임
- '13년도 기계장비 전체수입은 전년대비 1%하락하며 12.71억달러 기록

- 금속절단기계 수입은 9.43억달러로 전년대비 12% 상승, 금속성형기계가 3.28억달러로 전년대비 25%하락하며 전체 기계장비분야의 수입이 감소됨

< 기계장비산업 수입량 및 수출량 ('11년) >

Exports						Imports					
Country	2011 (est.) \$-Millions	2010 (rev.) \$-Millions	Change in local currency	Change in U.S. dollars	Exports* as % of 2011 Pdn	Country	2011 (est.) \$-Millions	2010 (rev.) \$-Millions	Change in local currency	Change in U.S. dollars	Imports* as % of '11 cnsmpn
1. Japan	11,380.6	7,517.2	37%	51%	62%	1. China, Peoples Rep.	13,070.0	9,420.0	\$	39%	34%
2. Germany	9,460.2	6,721.0	34%	41%	70%	2. United States	4,324.8	2,532.9	\$	71%	65%
3. Italy	4,451.9	3,260.5	30%	37%	71%	3. Germany	2,921.5	1,909.7	46%	53%	42%
4. Taiwan	4,000.0	2,960.0	35%	35%	80%	4. India	1,804.0	1,285.0	40%	40%	77%
5. Switzerland	2,955.1	2,058.7	22%	44%	85%	5. Korea, Rep. of	1,791.0	1,444.0	\$	24%	35%
6. China, Peoples Rep.	2,380.0	1,850.0	\$	29%	9%	6. Mexico	c1,269.1	c936.3	\$	36%	93%
7. Korea, Rep. of	2,301.0	1,678.0	\$	37%	41%	7. Brazil	1,224.4	1,124.3	\$	9%	62%
8. United States	1,874.0	1,559.6	\$	20%	45%	8. Italy	1,182.5	915.1	23%	29%	40%
9. Spain	918.9	641.2	36%	43%	87%	9. Russia	1,118.0	1,006.0	11%	11%	85%
10. Belgium	870.9	642.3	29%	36%	232%	10. Turkey	1,030.0	690.7	49%	49%	80%
11. Austria	820.3	743.6	5%	10%	82%	11. France	998.9	701.9	35%	42%	84%
12. United Kingdom	818.5	629.7	25%	30%	124%	12. Taiwan	800.0	706.0	13%	13%	44%
13. France	747.1	513.8	38%	45%	80%	13. Belgium	797.2	597.3	27%	33%	264%
14. Netherlands	484.1	401.3	15%	21%	121%	14. Canada	c770.5	c566.5	\$	36%	67%
15. Czech Republic	473.0	441.0	7%	7%	106%	15. Switzerland	733.1	514.0	21%	43%	59%
16. Turkey	413.0	380.8	8%	8%	62%	16. United Kingdom	722.2	544.6	28%	33%	129%
17. Canada	c266.2	c264.6	\$	1%	42%	17. Japan	648.0	435.6	35%	49%	9%
18. Sweden	179.5	213.2	-20%	-16%	82%	18. Austria	450.6	345.9	24%	30%	71%
19. Finland	139.1	112.6	18%	24%	83%	19. Netherlands	411.8	340.4	15%	21%	125%
20. Brazil	107.8	100.4	\$	7%	12%	20. Sweden	333.9	264.9	20%	26%	90%
21. Denmark	96.0	91.4	0%	5%	125%	21. Czech Republic	318.0	199.0	60%	60%	109%
22. Romania	u85.2	85.2	\$	0%	200%	22. Spain	317.2	277.7	9%	14%	70%
23. Australia	78.0	87.7	\$	-11%	77%	23. Romania	u285.7	285.7	\$	0%	118%
24. Russia	64.0	60.0	\$	7%	4%	24. Argentina	189.6	128.3	\$	48%	90%
25. Portugal	50.1	43.7	9%	15%	68%	25. Australia	144.0	195.1	\$	-26%	86%
26. Mexico	c30.6	c41.4	\$	-26%	25%	26. Finland	100.2	86.1	11%	16%	78%
27. India	28.0	22.0	27%	27%	5%	27. Portugal	80.7	92.7	-17%	-13%	77%
28. Argentina	10.4	11.0	\$	-5%	32%	28. Denmark	62.6	59.6	0%	5%	145%

자료원 : 가드너 조사보고서('12년)

□ 주요 투자계획

- 인도 정부에 의한 기계장비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의 자유화는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량을 증가시킴

- 인도 기계장비시장은 가격사안이 중요, 현지생산을 통해 사업을 확장시키는 국제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높아지고 있음

<기계장비 제조기업 최근 투자현황>

기업	투자 사항	투자 지역	투자금 (US\$천만)
Bharat	전력설비 제조공장 및 그린필드개발단지 건설 예정	반다라	8.48/219
ABB	전압 및 변압제조시설 단지 구축	추진중	4.21
Amara Raja	사륜차량용 배터리 생산공정 확대	추진중	0.81
Mitsubishi India	수출시장확대를 위해 인버터 조립 시설 증대건설 예정	푸네	NA
Siemens	풍력터빈 공장 추가설립예정	바도다라	최대 236

자료원 : 인도 경제무역포럼('13년)

<우리기업 주요 진출현황>

- 1) 현재 인도 내 기계장비산업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우리기업은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효성, LS산업, 두산중공업 등이 있음
- 2) 두산 중공업은 4,000MW급 단일 규모 세계최대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준공하였으며 인도 최대 발주처인 타타 파워사로부터 정확성과 경쟁력을 찬사받음
- 3) 한국 기업들의 광범위한 연구개발 역량과 최첨단 기술은 인도 기계장비산업에서도 주목받고 있음

□ 꾸준한 제조업 성장기대

- (제조업 허브성장) 인도 제조업은 '11년 전체 수출의 66% 차지, 지난 5년간 연 20%의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제조업 허브로 성장 중임
- 전체 GDP에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5%로 상승하고 관련 산업에 고용인력 1억 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산업 부흥) 도요타, 현대, BMW와 같은 국제 자동차기업들이 거대 제조생산단지를 인도 여러 지역에 건설 계획
  - 자동차개발계획(The Automotive Mission Plan)을 통해 세계자동차 산업 허브화를 목표로 삼아 향후 5년 이내로 자동차산업 매출 1,450억 달러 달성, 현재 GDP 비중의 2배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음
  - 3.88억 달러를 투자한 국립 자동차 시험·연구개발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인도 자동차 산업은 최첨단 기술, 실험 및 검증, 연구 개발 등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

#### □ 인도정부의 활발한 제조업 개혁노력

- (낙후 인프라개선) 제 12번째 경제개발계획('12년~'17년)에 따라 인프라 부분에 1.20조달러가 투자되어 공공-민간협력(PPP)개발방식의 확대를 통해 인프라 부분에 큰 성장 기대
  - '13년 중반부터 전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특별인센티브 패키지(M-SIPS2)를 발표, 하드웨어생산량 증대를 기대
- (근무환경 개선) '12년 정부는 또한 계약노동법(Contract Labour) 개정안을 통해 비정규직 인력과 계약인력에 대한 산업인력의 근무환경과 조건을 더욱 개선시킬 예정

#### □ 정부에서 발표한 제조업 발전 정책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발표 제조업 발전정책 주요내용>

1) 국가제조업투자구역(NMIZ) 설립  
 • 특수목적기업 설립을 통해 정부에서 요구되는 재정 및 행정 지원

2) Modified Special Incentive Package Scheme (M-SIPS): 제조산업분야의 부흥을 위한 특별인센티브제도로써, 경제특구지역 투자시 자본지출금의 20%가 정부지원, 경제특구외 지역에서는 25%지원될 것. 해당분야는 통신, IT 하드웨어, 소모용 전자기기, 의료전자기기, 자동차전자기기, 태양열 및 반도체기기 등

- 설립 실무 작업(부지매입, 전력공급, 도로, 상하수처리)은 지방정부에서 수행
  - 유연한 고용 장려(해고의 유연성 보장, 계약근로폐지법안, 노조설립 제한 등)
- 2) 기업철수 보조정책
    - 기업철수시 용이한 제도마련
    - 인력에 대한 전별금(급여 15일\*근무년수)지급 전이어도 철수 허용
  - 3) 친환경 기술 육성
    - 친환경제품 및 기술우대 (우대금리제공, 재활용장려, 연구기금조성)
  - 4) 인센티브 제공
    - 경제특구, 수출전담기업(EOU), 산업공단 및 창고구역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
    - 근로자 직업훈련비를 연구개발비로 처리 가능
    - 국제/국내 표준 취득에 따른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 국제특허 취득 비용의 50% 정부 부담
    - 입주 기업 제품의 우선적인 정부 조달 등
  5. 허가, 승인 절차의 간소화
    - 환경 및 산림 해제 허가, 부지매입, 용수 확보 및 처리 절차의 간소화
    - 단일창구(Single Window) 설립을 통한 각종 인허가 처리신속화
  6. 인력 육성
    - 민관협력 방식으로 교육훈련기관 설립, 운영

□ 향후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 주로 3차 산업 위주로 성장해온 인도 산업은 향후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시 제조업이 부흥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전자, 자동차, 인프라, 바이오제약산업 역시 크게 성장할 것

<주요 산업별 유망제품 및 진출전략>

산업 분류	유망분야	진출 전략	시장규모(US\$억)
전자	부품분야	현지화, 부품산업 진출	274
자동차	전장 부품	B2B 시장 진출	385
바이오제약	신약, 진단	현지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	118

자료원 : 삼성경제연구소('11년)

## IV. 우리기업 진출전략

### 1. 현지기업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협력을 통한 진출

- 한국 기업들이 인도시장 진출에 전략적 방법을 통한 성공을 원할시 지역별·소득별로 세분화된 진출전략 수립, 현지 소비자 및 기업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진출필요
- (전자 산업) 현지화 전략과 부품사업 집중전략
  - 인도 전자산업은 연 2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저가 시장의 확대로 중국과 인도 국내 가전업체가 급성장 중임
  - 이에 현지 실정을 감안한 중저가 제품 라인업 구축 필요
- (자동차부품 산업) B2B 사업을 통한 진출전략
  - 한국 자동차기업은 인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IT 하드웨어와 양산기술을 인도의 높은 개발력과 저임금을 결합하여 차량용 전자장비 부품 제조업에 경쟁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제약 산업) 현지 연구개발시장 개척을 통한 진출전략
  - 현재까지 인도 내 바이오제약관련 진출 한국기업은 LG 사 뿐이며, LG 사는 간염백신, 유전자 재조합 제품, 생명 공학제품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음
  - 인도의 높은 연구력 및 저렴한 실험비용 등을 이용하여 계약연구 및 바이오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의약품, 세포조직배양, 바이오센서, 미생물 활용 등과 같은 바이오공학 진출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인도 내수시장 공략, 주변지역 수출확대를 통한 투자전략

- CEPA 체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인하 회담에 대한 장기화와 인도시장에의 수출한계 등으로 직접투자가 필요
  - 합작투자를 진행할시 의사결정 지연 및 분쟁, 인도인의 상술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며, 파트너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잘 조정해야함

## 3. 인도 사업 진출 시 고려사항 및 해결과제

- (열악한 인프라 및 토지인수 지원) 중국과 비교할 경우 잦은 운송지연, 공장부지 부족, 항구설비 부족 등 기초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열악하며 특히 물류비가 생산원가의 20%를 차지해 높은 운송비용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 토지 인수문제 역시 공장설립이 요구되는 제조업 성장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토지인수비용이 3배에서 3.5배로 인상되어 착수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는 많은 제조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관련 프로젝트 착수 연장 및 취소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복잡한 노동법으로 인한 혼란) 세계은행보고서에 의하면, 인도의 노동법은 현존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노동법 중 가장 제한적이고 복잡함
  - 인도에는 중앙부처에 51개, 주 별 170개의 노동법이 있어 인도 진출 시 진출 주(州)의 노동법을 정확히 숙지하여야함
- 인도 현지기업에 대한 노동조합 보호법에 의거 진출 해외기업에 대한 노동법이 엄격한 수준, 이에 사업 철폐시 해외기업에의 불리한 요소가 많은 상황임

- 이로 인해 대인도 투자진출에 많은 해외기업들이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며, 이밖에도 직원 해고와 관련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유의 필요
- (만성적 뇌물 및 부정부패) 글로벌 경제범죄 조사기관 발표보고(“11년)에 의하면, 인도 제조업 분야에서 직면한 가장 흔한 경제범죄로 뇌물과 부정부패를 들었음
- 또한, 인도 위험도조사 발표(“13년)에 의하면 인도는 공공과 민간 부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례와 신용사기로 인해 국제 사업 투명성 평가에 낮은 수치를 받음

#### 4. 기타 고려사항

- (주 별 정책과약) 인도는 연방제으로써 지방정부의 권한이 크므로 진출지역 관할의 주정부 정책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서 진출하여야하고 지역 선정시 주정부의 재정건실도, 외국투자 호의여부 등을 고려하여야함
- (인력관리 필요) 고학력 인력이 풍부하나 비숙련노동자의 채용 건수가 높아 높아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인도 인력들은 근무이직율이 높아 사전 직원 관리가 필요
- (CEPA 활용) 한-인도간에 체결한 CEPA의 활용도를 높혀 투자와 정부조달에서의 최혜국 우대인정 등 협정 업그레이드에도 주목하여야 함
-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타개 및 진출확대를 위해 인프라 투자에서의 지원, 통상 및 조세분야에서의 정부 간 협력,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등 우리 기업을 위한 혜택 개선안을 추진할 필요 요망

## 2013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3.1
13-002	2013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1
13-00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	2013.1
13-00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골프용품 -	2013.1
13-005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안경테 -	2013.1
13-00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에스터 단섬유 -	2013.1
13-007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프로필렌 테이프 -	2013.1
13-008	선진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	2013.2
13-009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광케이블 -	2013.2
13-01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전동공구 -	2013.2
13-01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컴퓨터 주변기기 -	2013.2
13-01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펌프 -	2013.2
13-013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	2013.2
13-014	한-콜롬비아 FTA 효과 및 활용방안	2013.2
13-015	떠오르는 이라크 재건시장을 선점하라	2013.2
13-016	주요국 환율변동에 따른 해외시장 동향과 진출여건	2013.2
13-017	엔저하의 수출 경쟁력 현황 및 전망	2013.2
13-018	한미 FTA 발효 1주년, 대미 수출 성과 분석	2013.3
13-019	일본의 대인도 진출전략 및 대응방안	2013.3
13-020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주요 시장 동향 <기타 무선통신기기>	2013.3
13-02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플라스틱 가공제품 -	2013.3
13-02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편직물 (인조섬유제) -	2013.3

## □ KOCHI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한국 수출 증대의 길, 한류에 묻다	2013.1
13-002	[중국 석학에게 듣는다] 2013 중국 경제 전망	2013.2

##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	2013.1
13-002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3.1
13-003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3.1
13-004	2012년도 북한의 대외교류동향	2013.2
13-005	GCF시대에 대비한 세계그린프로젝트 수주방안	2013.3
13-006	국가HR 개선 방안 연구	2013.3

##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3-001	201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3.1
13-002	2013 중국3대 유망시장 설명회	2013.1
13-003	2013년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쉽 포럼	2013.1
13-004	Iraq-Korea Business Forum	2013.3

작성자

- ◆ 방갈로르무역관 조수정 과장
- ◆ 신흥시장팀 안성희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3-073

개방으로 눈뜬 제조업, 인도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3년 1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